

보수 2野 “보이콧”... 국회 멈춰섰다

한국당·바른미래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 윤창호법·유치원3법 논의 무산... 예산안 심사도 차질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마저 국회 보이콧에 나선에 따라 국회가 멈춰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보수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히 맞서고 있어 국회 공전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제1·2야당의 대어투쟁 전선이 정기국회 보이콧으로 현실화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당장 행정안전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읍·면·동 주민자치법, 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두 야당의 국회 일정 거부로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기획재정부의 세법 심사는 물론이고 사립유치원의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교육위),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논의도 진행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아 국회가 결국 처리시한(12월 2일)에 쫓겨 ‘날림 심사’ 하는 것이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문화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야당은 강원랜드를 포함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조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문화상 국회의장을 찾아 민주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만 수용한다면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민주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수용한다면 예산안 심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모든 의사진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문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야 3당은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당을 제외한 국정조사위원회를 의장이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멈춰섰지만 여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국회 공회전에 대한 ‘네 탓 공방’을 강화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막무가내식 문제인표 인사강행, 국회 관행과 협상의 틀을 훼손하는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 정수 확대 주장에 가로막혀 여야간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여당에 화살을 겨눴다.

바른미래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기 전까지 국회의사실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두 보수야당이 명분 없는 어깃장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비판에 열을 올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명분도 없이 국회를 파행시키고 책임은 정부·여당에 돌리고 있다”며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나쁜 정치’라고 꼬아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 여부까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정국이 더욱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文정부 권위 흔들리나”

박원순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 참석 놓고 일침

바른미래당 손학규대표는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주말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할 점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정부가 대통령의 권위가 흔들리는 레임덕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손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제 연장은 정의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것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가서 노동중독 특별시장을 자처하나. 정부·여당의 권위가 없어진 것”이라며 이 같이 꼬집었다.

손대표는 또 ‘해경공감세’ 트위터 계정 경찰 수사결과에 따른 여권 내 기류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경기자사를 어



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길거리에서 이리저리 말라고 하고, 말 잘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짝소리 못하고 있다’며 “경찰이 권력 편에 선 것인지, 권력 내부에 갈등이 생긴 것인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50% 초반대로 떨어지고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내분이 일어난 것이거나 권위가 흔들리는 레임덕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반문 연대 옳지 않다”

비핵화·경제 등 할 일 태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0일 아권 일각의 ‘반문(반문재인) 연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MBC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한 뒤 “현재 비핵화·경제·노동·적폐청산·사법개혁 등 5개 부분에서 굉장한 파장이 몰려오고 있다. 대통령은 이를 국회·국민과 소통하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런 대통령을 두고 일을 못 하게 반문연대를 구성하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온 그는 이번 남북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



방과 관련해 “내가 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에 개인적 의견을 북측과 나눴다”면서 “답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 나에게 물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더는 자세한 언급을 삼갔다. 박 의원은 다만, “비핵화를 위해서나 한반도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김 위원장은 답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래야)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로서 노벨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돌아온 홍준표

정치 재개 선언... 전대 앞 한국당 역학 구도 ‘출력’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정치 재개를 선언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의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후 5개월여만이다.

홍 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 글에서 “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그것만이 좌파 광풍 시대를 끝내고 내 나라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지방선거 패배 직후 야당 대표를 물러나면서 홍준표가 옳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바로 설 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다”며 “최근 사해평화구역은 정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내다봤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계를 떠난 일이 없기에 정계 복귀가 아니라 현실 정치로의 복귀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의 재등판에 따라 권력재편 전환기를 맞은 당내 역학 구도도 출렁일 전망이다. 특히 정치 재개를 선언한 시점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열기가 서서히 고조되는 국면과 겹쳐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해찬 “연평도 평화 정착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연평도 내 연평부대를 방문, 변요한 부대장으로 부터 북한 개마리해안포 등 부대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2 공공기관 이전 시간 걸려도 추진”

이해찬 민주당 대표,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을 잘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이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며 “잡어정 부 때 공공기관 150개 정도를 지방으로 이전해 혁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가서 보

니 자족 기능이 아직은 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처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나라가 없다”며 “이렇게 집중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특히 주거정책이 아주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해찬 대표는 서해 연평도를 방문,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3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남

북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정상 간 신뢰가 많이 생겼고 제가 정상 만찬 등에 참여해서 감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남북에 대한 대결 분위기가 많이 약화됐다”며 “앞으로 3년 동안 조금씩이라도 완화가 되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군사합의서 역시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는 ‘합의가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저희도 낙관하지 못했는데 막상 협의를 하고 미국과 유엔군사령부도 동의를 했다”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서해평화구역은 정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내다봤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화해·치유재단’ 해산

정부, 빠르면 주내 발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결정을 이르면 금주 중 발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 중 화해·치유 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 방침은 일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는 화해·치유 재단 해산까지 법적 절차에 6개월~1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기간에 10억 엔 처리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한데다가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작년 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가 됐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 단위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6
	한국어교육학과	1
사범	유아교육과	2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신학대학원 (특별전형) • 원서접수 : 2018. 11. 20(화) ~ 11. 28(수)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일반전형)
• 원서접수 : 2018. 12. 3(월) ~ 12. 12(수)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사소 36

사망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